



“청정 인제 제철 봄나물 드시고 코로나19 이겨내세요”

강원 인제군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산채를 엄선한 '명품 산채 꾸러미 상품'을 구성해 본격적인 홍보와 판매에 나섰다.

봄의 전령사인 산채 중에서도 맛과 향이 으뜸인 산마늘(명이), 곰취, 아스파라거스 3종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인제 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명품 산채 꾸러미 상품'은 2~4인 가구를 겨냥해 모든 품목을 무료로 배송한다. 꾸러미 상품의 가격은 1만5천원이다.

육류와 함께 쌈 채소로 먹을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하고, 무료 배송을 통해 집에서 봄의 향기를 맞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인제군의 설명이다. 양질의 산채를 공동선별을 통해 꾸러미로 엮어 수도권 대형마트로 판매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제철 산채를 온라인 주문해, 집에서도 봄의 향기를 만끽하고, 코로나19도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제군 '면역력 강화' 곰취·명이나물 인터넷 쇼핑몰 특판
강원 인제군은 인터넷 쇼핑몰인 인제몰에서 5월 13일까지 '봄나물, 가정의 달' 맞이 특판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기업을 돕고자 마련됐다. 판매하는 봄나물은 청정 인제에서 채취한 곰취와 명이나물이다. 택배비를 포함해 1kg당 각 1만2천원과 2만원이다. 면역력 향상에 으뜸가는 도라지 진액 및 발효액 등도 최대 23%까지 할인 판매한다.

2017년 9월 개설해 현재 70개 기업이 입점해 운영 중인 인제몰에는 올해 5개 기업이 추가로 입점한다. 또 강원도 공식 인터넷 쇼핑몰 '강원마트'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의 온라인 판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과 면역력 강화에 신선한 제철 봄나물만 한 것이 없다”며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제철 봄나물을 집에서 만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제 농·특산품 코로나19 뚫고 미국 서부 2차 수출길

강원 인제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품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LA) 수출에 나섰다. 인제군은 4월 8일 원통 농공단지 내 하늘농산 주차장에서 6개 업체, 47개 품목이 미국 서부 LA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1차 수출에 이은 미국 LA로의 2차 수출길인 셈이다. 2차 수출품은 황태 가공품, 건표고, 포기·총각·파김치, 웰빙 구시다 등 건강보조식품과 잡곡류, 오미자 진액, 누룽지 등 컨테이너 1대 분량이다. 수출액은 1억8천만원 상당이다.

이번 수출은 국내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이뤄져 지역 제조업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해외 수출길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 강원 인제군에서 농민들이 산마늘(명이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2 원통 농공단지 내 하늘농산 주차장에서 수출 제품을 적재하는 모습



2020
햇봄나물
판매개시

[입맛 돋우는 향긋한 식탁
인제몰에서 미리 준비하세요!]

판매기간 : 4.13 ~ 5.13